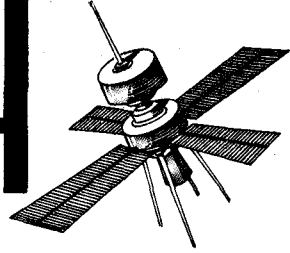


# 이달의

# 인테리어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양계인의 사회적 지위

사람이 빵만으로 살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진 선미를 추구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빵문 제와 일하고 있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같은 비중으로 높게 생각한다. 우리 업체도 급료와 회사에서의 지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큰 회사를 선호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합상사에 취업 희망자가 물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급료보 다도 사회적 인식도가 높은데 있다고 한다. 중 소기업이나 소규모의 개인업체들이 이러한 욕구 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대개 처음 취직할때 과 장직책을 주고 2~3년 지나면 부장 아니면 상 무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협회나 조합을 만들고 정 관에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협회의 주요사업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최근 대한교육연합회에서 40개 직종에 대해 서 교원·공무원·대학생·회사원·학부모·근 로자·농민 등 1,87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적 지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 하였다. 축산업자는 중하위에 5급공무원과 7 급공무원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축산업하면 저푸른 초원위 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젖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으며 그옆에 말을 타고 있는 동화속의 농장들을 연상해서 이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높 아진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양계업으로세분 하면 사회적 지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지위보다도 더욱 낮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경제적 지위라도 높으면 좋으련만 최근의 신문에 보도된 소값파동이나 양돈불황 등이 축산업자들을 국민들이 불쌍하 게 보여주는 것같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축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높게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실세화 해주었으 면 하는 것이다.

다행히 직종별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인식에 서 농민이 5위로 나타나(1위 청소년 지도자,

◇ 직종별, 사회 경제적 인식도



2 위 교원, 의사, 약사 3 위, 판검사는 4 위, 변호사 6 위, 기자 7 위, 간호원 8 위, 공무원 9 위, 은행원 10 위) 축산도 농업이고 축산업자도 농민이란 홍보를 해서 축산업의 사회적 공헌도를 국민에 알리면 축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이 국민보건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의사나 약사와 같이 사회공헌도가 2 위 정도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위생적이고 품질좋은 축산물 공급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는 축산업도 사회에 기여한 만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떳떳하게 요구할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지위	▲ 경제적 지위
① 판사	① 의사
② 검사	② 국회의원
③ 국회의원	③ 변호사
④ 대학교수	④ 판사
⑤ 변호사	⑤ 검사
⑥ 의사	⑥ 대학교수
⑦ 약사	⑦ 영화배우·탈렌트
⑧ 소설가	⑧ 프로야구선수
⑨ 항공기승무원	⑨ 약사
⑩ 목사	⑩ 가수
⑪ 5 급공무원	⑪ 항공기승무원
⑫ 건축기사	⑫ 목사
⑬ 프로야구선수	⑬ 건축기사
⑭ 경위 (파출소장)	⑭ 대기업사원
⑮ 컴퓨터프로그래머	⑮ 컴퓨터프로그래머
⑯ 대기업사원	⑯ 부동산거래인
⑰ 육군대위	⑰ 호텔지배인
⑱ 은행원	⑱ 5 급공무원
⑲ 일간지기자	⑲ 은행원
⑳ 중등교사	⑳ 경위 (파출소장)
㉑ 영화배우·탈렌트	㉑ 소설가
㉒ 축산업자	㉒ 육군대위
㉓ 청소년지도자	㉓ 축산업자
㉔ 초등교사	㉔ 일간지기자
㉕ 가수	㉕ 개인택시기사
㉖ 중소기업사원	㉖ 중등교사
㉗ 간호원	㉗ 전기기사
㉘ 전기기사	㉘ 정원사
㉙ 순경	㉙ 중소기업사원
㉚ 호텔지배인	㉚ 초등교사
㉛ 7 급공무원	㉛ 간호원
㉜ 정원사	㉜ 자작농
㉝ 개인택시기사	㉝ 청소년지도자
㉞ 자작농	㉞ 7 급공무원
㉟ 부동산거래인	㉟ 순경
㊱ 타자원	㊱ 목수
㊲ 전화교환원	㊲ 이발사
㊳ 집배원	㊳ 타자원
㊴ 목수	㊴ 전화교환원
㊵ 이발사	㊵ 집배원

## 축산업에 혁명이 온다

최근 구미 선진국들이 방사선에 의한 식품 사료의 멸균과 농축산물의 장기 저장법을 실용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냉장고의 기능이 시원한 김치나 여름철 시원한 냉수물, 또는 시원한 맥주 등 음료수를 마시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절하되지 않나 생각된다.

멸균과 식품 보관에 방사선의 이용이 인체에 미치는 유전적인 측면을 포함한 각종 부작용을 염려하여 50년대 개발되어 그간 각종 실험이 행해진후 최근에야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방사선조사 식품저장법은 코발트 60이나 세슘137과 같은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사람이 먹어도 해롭지 않을 만큼 식품에 쬐어 저장하는 기술이다. 방사선을 쬐인 식품은 종래의 식품저장방법인 건조, 염장, 냉동, 가열, 화학약품처리 등으로 저장된 식품에 비해 영양분의 손실이 적고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 완전소독과 장기저장을 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에너지의 감마선은 생물체의 신진대사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핵산생성을 막아세균이나 해충을 100%전멸시킬 수 있다. 또 같은 방법으로 감자, 양파, 마늘, 버섯 등은 싹이 트거나 뿌리가 나는 것을 막아 저장기간을 종래의 3 배 이상 늘릴 수 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FAO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 등 3 개 기구의 공동전문위원회는 지난 64년에 처음으로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평가를 시작한 이래, 89년에 최종적으로 어떤 식품이든

평균 1 메가(백만)rad(방사선에너지단위) 까지 방사선을 쬐어도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후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그간 한국에너지 연구소에서 과일류·곡류·고기류·생선류 및 가공식품에 대해 실험실 규모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

금년 6월 29일 이에 대한 관계 법률이 개정되고 이번 「유영물산」이 과기처의 허가를 받아 40 만톤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진 방사선 조사시설 허가를 받아 내년 중반에 완공하면 국내 산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도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연중 계절적으로 가격의 등락이 심해 항상 불안한 브로일러 산업도 정책적 배려에 따라서는 적은 비용으로 신선하게 저장이 가능해 가격안정에 획기적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 방역에는 방심없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려고 하는 닭의 질병중에 류코사이토준이란(Leucocytozoonosis) 병이 있다.

질병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병이 발병하면 의외로 피해가 크데도 불구하고 최근 발병이 적어지자 잊혀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의심이 된다.

이 질병의 예방으로 피리메타민이 배합사료에 첨가되어 사용되는데 금년에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피리메타민의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류코사이토준에 의한 양계농가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Pyrimethamine 업체별 수입실적 (단위 : kg)

업체명	년 도		
	'83	'84	'85 8월말
중앙케미칼	400	350	300
한국바이엘화학	150	100	100
삼우화학공업(주)	200	250	200
한국고킹		50	100
제일화학공업사	100	100	
제일사료		50	
한풍산업		50	
한국동물	10		
계	860	950	700

## 한국인 식사가이드라인의 제정

한국 식량영양경제 학술협의회(회장 한국과학기술원 權泰完博士)에서 우리의 식생활 지침이 되는 한국인 식사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각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바 있다.

고려대 의대 朱軫淳 박사와 과학기술원 李茂夏 박사가 공동연구 작성한 것으로 발표된 식사가이드라인은 5 가지 기초식품군을 식품명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올바른 식생활의 지침으로 ① 5 가지 기초식품을 골고루 먹을것 ② 생선류와 콩류를 더 많이 먹을것 ③ 짜게 먹지 말것 ④ 우유를 많이 마실것 ⑤ 표준체중을 유지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식사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가 영양소간 균형있는 식사가 되지 못해 허약아가 있는가 하면 비만·당뇨, 고혈압 등 食原病이 늘고 있어 그릇된 식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특징으로 단백질 급원으로 콜레스테롤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생선류와 콩류를 더 먹어줄 것을 권하고, 우유를 많이 마시기를 권하는 것이다.

얼마전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 식생활에서 낭비를 줄이자는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각계 대표들이 모여 심포지움을 개최한 적이 있었다. 외채절감을 위한 소비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편의상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콩류



이드라인은 자칫하면 과거의 보리가 남을 때 보리밥 먹기운동이나 쌀이 부족했을 때의 분식장려 정도로 인식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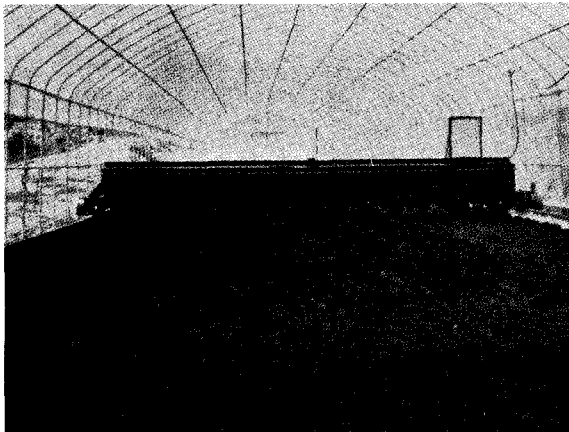
이를 발표한 기관의 이름도 한국 식량영양경제 학술협의회로 이름만 보아서는 경제란 말이 있어서 쉽게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식량영양관리법(가칭, 여기에는 경제란 말은 빠져 있음)을 제정한다고 하는 바 식량이란말 대신에 먹거리연구회에서는 먹거리란 말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농수축산분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법의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식량을 생산하는 양계업자로서 그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와 생선류가 권장되고 우유체화가 사회문제로 되고있는 요즘 우유를 많이 마시라는 식사가

## 전자동 축분건조 장치

###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활용



#### ● 특징 ●

- 전자동
- 연료비가 없음
- 무취로 공해가 전혀 없음
- 연분 처리 적합
- 완전 분쇄 건조
- 타이머 부착으로 작동 전후진
- 건조계분은 유기비료로 대인기

AUTOMATIC FEEDING SYSTEMS & INCUBATOR

**RA** 平農畜機

〒180-86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전화 (0333) 4-7484

야간(서울) 803-6724